

# 현대 중국어 구어 ‘有+VP’ 구문의 학습자 오류 분석과 인지적 교학 방안

— 한국어 ‘있다’의 부정적 전이를 중심으로

이슬기\*

## — 목 차 —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2.1 중국어 표지 ‘有’의 존재론적 총위와 상적 강요
  - 2.2 모국어 전이 이론과 언어 간 인지적 매핑
3. 한국어 ‘있다’와 중국어 ‘有’의 기능 대조 및 오류 기제
  - 3.1 한국어 존재사/보조용언 ‘있다’의 광범위성
  - 3.2 한국인 학습자의 어휘적 과잉 일반화 및 L1 전이의 늪
4. 학습자 오류 데이터 실증 분석
  - 4.1 [오류 유형1] 유계성 제약 위반
  - 4.2 [오류 유형2] 정태성 제약 위반
  - 4.3 [대조 분석] 과거 경험 구문에서의 긍정적 전이 양상
5. 인지언어학 기반 ‘有+VP’ 구문 교학 방안
  - 5.1 1단계: 모국어 간섭 배제를 위한 ‘탈동기화’ 전략
  - 5.2 2단계: 존재론적 총위의 화용 기능 교수
  - 5.3 3단계: 청크 기반 공기 훈련과 화용적 역할극
6. 결론

## 국문초록

현대 중국어의 ‘有+VP’ 구문은 단순 시제 표지가 아닌, 사건을 정태적 대상(Static Object)으로 변환하여 진리치나 가용성을 묻는 존재 양태 표지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

\*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학습자가 발화 현장에서 해당 구문을 빈번하게 오용하는 원인을 한국어 보조용언 ‘있다’와 의존명사 구성(‘-르 거’)의 직역에 따른 부정적 모국어 전이(Negative L1 Transfer)로 규정하고, HSK 동태 작문 코퍼스(HSK Dynamic Composition Corpus)를 통해 그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동작의 끝을 알 수 없는 비유계 상황(진행 및 상태 지속)과 화자의 주관적 미래 의지를 나타내는 동태적 상황에 정태적 표지 ‘有’를 강제 결합하는 핵심 오류를 산출하였다. 이는 목표어 ‘有’의 ‘상적 강요(Aspectual Coercion)’ 제약을 인지하지 못한 채, 모국어 ‘있다’의 광범위한 쓰임을 어휘적으로 과잉 일반화한 결과이다. 반면, 유계성과 정태성이 충족되는 과거 경험 구문에서는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가 발생함을 확인하여 본 연구의 인지적 분석 틀을 교차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단순한 형태적 오류 교정을 넘어선 인지 화용론적 3단계 교학 방안을 제안하였다. 모국어 ‘있다’와의 맹목적인 인지적 연결을 끊는 탈동기화(De-synchronization) 전략, [+실현] 영역의 ‘팩트 확인’과 [-실현] 영역의 ‘가용성 탐색’이라는 화용 기능 교수, 그리고 보어 결합 청크(Chunk) 훈련 및 화용적 역할극을 구체적인 교육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코퍼스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형태·통사적 분석을 넘어 실제적인 인지 화용론적 교육 처방으로 논의를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키워드:** ‘有+VP’ 구문, 상적 강요, 부정적 모국어 전이, 어휘적 과잉 일반화, 코퍼스 오류 분석, 기생적 매핑, 인지 화용론적 교수법

## 1. 서론

현대 중국어 구어에서 의문 표지 ‘有(yǒu)’의 사용 빈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대만 국어 및 남방 방언의 영향을 넘어 범중화권의 보편적인 화용적 기제로 자리 잡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본고는 ‘有’가 결합된 의문문이 단순한 과거 시제 표지가 아니라 사건을 정태적 대상(Static Object)으로 변환시켜 그 진리치나 가용성을 묻는 ‘존재 양태 운전자(Existential-Modal Operator)’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들은 실제 발화 현장에서 원어민의 화용적 직관과 어긋나는 '有' 구문의 과사용(Overuse) 및 오용(Misuse) 오류를 빈번하게 범한다. 예를 들어, 단순한 현재 진행 상황에서 “\*我有看書(나는 책을 보고 있다)”라 발화하거나, 주관적 의지를 묻는 상황에서 “\*明天有去不(내일 갈 거야?)”와 같은 비문을 생성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오류의 근본 원인이 한국어의 다기능 존재사 및 보조용언 '있다'와 의존명사 구성('ㄹ 거/거')이 중국어의 '有'로 무분별하게 직역되는 부정적 모국어 전이(Negative L1 Transfer)에 있다고 본다. 한국어의 '있다'는 시상(Tense-Aspect)의 제약 없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반면, 중국어의 '有'는 후행 사건을 대상화(Objectification)하는 엄격한 '상적 강요(Aspectual Coercion)'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두 언어 간의 인지적 매핑(Cognitive Mapping) 불일치로 인해 어휘적 과잉 일반화(Lexical Overgeneralization) 오류를 겪게 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중국어 교육은 '沒는 과거, 不는 미래'라는 이분법적 도식에 갇혀, '有' 구문이 지닌 복잡한 화용적 기능과 제약을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 교수하지 못했다. 더욱이 현재 시판 중인 대다수의 중국어 교재는 '有'를 소유나 존재를 나타내는 본동사 혹은 과거 경험으로만 제시할 뿐, 구어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사건의 대상화 기제로서의 양태적 기능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목표어의 화용적 제약을 체득하지 못한 학습자들은 발화 시 모국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HSK 동태 작문 코퍼스를 통해 한국인 학습자의 '有' 구문 과사용 오류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지·화용론적 관점의 새로운 교학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고가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는 동사의 기저 자질(상태, 비종결 동작, 종결 사건) 및 양태적 문맥([+ 실현], [- 실현])에 따라 어떠한 인지적 충돌을 겪으며 '有+VP' 구문 오류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이러한 오류 양상은 한국어 존재사 ‘있다’의 L1 간섭 기제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

셋째, 상적 강요 이론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화용적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지적 교수법(Pedagogical Intervention)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론 언어학적 분석의 성과를 교육 현장의 실제적 문제 해결로 연결함으로써, 한-중 대조언어학 및 중국어 양태 교육 분야에 유의미한 실증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본 장에서는 한국인 학습자의 ‘有+VP’ 구문 과사용 및 오용 현상을 심층적으로 해부하기 위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다. 학습자의 체계적인 오류가 단순한 문법적 무지나 부주의가 아니라,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복잡한 인지적 충돌에서 비롯됨을 규명하기 위해 본 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먼저 2.1절에서는 목표어인 현대 중국어 구어 ‘有+VP’ 구문이 지니는 고유한 화용적 기능, 즉 동태적 사건을 정태적 대상으로 변환시키는 ‘존재론적 층위’와 ‘상적 강요’의 통사·의미론적 기제를 고찰한다. 이어 2.2절에서는 제2언어 습득론(SLA)의 ‘모국어 전이(L1 Transfer)’ 및 ‘전이 가능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다기능 보조용언 ‘있다’가 어떻게 중국어 ‘有’에 기생적으로 매핑되어 ‘과잉 일반화’ 오류를 유발하는지 추적한다.

이러한 두 축의 이론적 검토는 두 언어 간의 형태적 유사성 이면에 감춰진 화용론적 불일치를 폭로하며, 향후 제4장의 코퍼스 데이터 실증 분석과 제5장의 인지 화용론적 교학 방안을 도출하는 견고한 분석 틀로 작용할 것이다.

## 2.1 중국어 표지 '有'의 존재론적 층위와 상적 강요

현대 중국어 구어에서 동사구(VP) 앞에 놓이는 '有'는 단순한 소유나 존재를 나타내는 본동사를 넘어, 사건의 실현성(Reality Status)을 따지는 고도의 화용적 양태 표지로 기능한다(Palmer, 2001).<sup>1)</sup> 선행 연구에 따르면, 동사 앞의 '有'는 사건을 시간 축 위에서 흐르는 '동태적 행위'로 서술하는 '서술적 층위(Narrative Level)'에서 벗어나, 사건 자체를 하나의 '정태적 대상'으로 변환하여 그 존재 유무를 따지는 '존재론적 층위(Existential Level)'로 발화의 성격을 전이시킨다.

이러한 전이 과정의 핵심 기제가 바로 '상적 강요(Aspectual Coercion)'이다. 상적 강요란 구문이 지닌 의미적 자질이 결합하는 어휘의 기저 자질과 충돌할 때, 어휘의 의미를 구문의 요구에 맞게 강제적으로 재조정하는 인지적 메커니즘을 뜻한다(Michaelis, 2004; Pustejovsky, 1995).<sup>2)</sup> 존재 동사에서 파생된 '有'는 본질적으로 [+ 정태성(Static)] 자질을 요구하므로, 후행하는 동태적 동사나 사건의 의미역을 자신의 논항에 맞게 강제로 조정한다. 구체적인 양상은 사건의 실현(Realis)과 미실현(Irrealis) 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 실현] 영역에서 '有+VP' 구문은 시간 축 위에서 이미 완료된 사건(종결 사건)을 '확정된 팩트(Fact)'나 '경험'이라는 하나의 정태적 대상으로 포

- 1) Palmer(2001: 145-146)는 양태 체계에서 사건의 실제 발생 여부를 따지는 인지적 층위를 '실현성(Reality Status: Realis/Irrealis)'으로 규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Palmer의 보편적 양태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중국어의 '有'가 단순한 어휘적 동사를 넘어 사건의 실현성을 통제하는 고도의 화용적 표지(Pragmatic marker)로 진화하였음을 논증한다.
- 2) 상적 강요(Aspectual Coercion)에 대해 Pustejovsky(1995: 111-120)는 연산자와 인자간의 유형 불일치를 해결하는 어휘 생성적 기제로 보았으며, Michaelis(2004: 1-5)는 구문이 어휘의 상적 자질을 강제로 재규정하는 '구문 중심의 유형 전환(Type-shifting)' 기제로 정의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有' 구문이 후행 동사의 동태성을 억제하고 정태적 실체로 범주화하는 상적강요 기제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한다.

착한다. 즉, 단순한 동작의 발생을 서술하는 것을 넘어, 명제의 진리치를 강조하거나 사실 확인(예: 有去沒? 간 거 맞아?, 確實有去 確實히 간 거 맞아.)의 화용적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실현] 영역에서 ‘有+VP’ 구문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행위를 단순한 동작이 아닌 ‘객관적 가용성(Availability)’이나 ‘확정된 계획’이라는 ‘속성(Property)’으로 변환한다.(예: 有賣不? 파나요?/ 파는 거 있나요?, 有要開會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화자의 주관적이고 즉흥적인 동태적 의지(예: \*你有去不? 너 갈래?)나 진행 중인 미완결 사건을 나타내는 맥락에서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sup>3)</sup>

결과적으로 중국어의 ‘有’는 후행 사건이 뚜렷한 경계를 가진 ‘팩트’나 ‘객관적 속성/계획’으로 범주화될 수 있을 때만 결합을 허용하는 매우 엄격한 통사·의미적 제약을 갖는다. 이러한 중국어 ‘有’의 까다로운 상적 제약은, 상태와 진행, 미래 의지를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쓰이는 한국어의 다기능 존재사 ‘있다’와 인지적 충돌을 일으키며, 이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발화 현장에서 ‘有’를 빈번하게 오용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 2.2 모국어 전이 이론과 언어 간 인지적 매핑

제2언어 습득(SLA) 과정에서 학습자는 목표어(Target Language)를 처리할 때 무의식적으로 모국어(L1)의 언어적 지식과 개념 체계에 의존하게 되며, 이를 모국어 전이(L1 Transfer)라 한다(Odlin, 1989).<sup>4)</sup> Gass & Selinker(2008:

3) 2.1절의 주요 관점은 이슬기(2026) 「‘(有)+V+沒’와 ‘(有)+V+不’ 구문의 코퍼스 대조 분석 — 상적 강요와 존재 양태 운영자를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를 참고하였다.

4) Odlin(1989: 27)은 모국어 전이에 대해 “목표어와 이전에(어쩌면 불완전하게) 습득한 다른 언어 사이의 유사성 및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Transfer is the influence resulting from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arget language and any other language that has been previously (and perhaps imperfectly) acquired)” 이라고 정의하며, 학습자의 기존 언어 체계가 제2언어 습득에 미치는 인지적 개입을 강조하였다.

93-96)는 이러한 전이 양상을 언어 간 거리(유사성과 차이점)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누어 설명하였다. 모국어와 목표어의 통사 구조나 어휘 의미망이 일치하거나 매우 유사할 때는 모국어 지식이 '안전한 디딤돌'로 작용하여 습득을 촉진하는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Facilitation)가 발생한다. 반면,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Interference)는 두 언어의 규칙이 완전히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만' 겹칠 때 주로 발생한다. 이때 학습자는 두 언어가 전반적으로 동일하다고 착각하여 모국어의 규칙을 목표어에 부적절하게 확장 적용(과잉 일반화)하게 되며, 그 결과 원어민의 화용 직관에 어긋나는 체계적인 오류(Systematic Errors)를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적 일치'로 인한 과잉 일반화 현상은 Kellerman(1983)의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 이론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sup>5)</sup> 학습자는 모국어와 목표어의 특정 어휘가 핵심 의미(Core Meaning)를 공유한다고 판단할 때, 그 어휘의 주변적이고 확장된 의미까지 목표어에 그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인지적 경향을 띤다. 본 연구는 한국인 학습자가 범하는 '有' 구문 오류의 근본 원인이 바로 한국어 존재사 '있다'와 중국어 '有' 간의 잘못된 인지적 매핑(Cognitive Mapping)에 있다고 본다.

한국어의 '있다'는 존재와 소유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보조용언 구성을 통해 한국어 시상 체계 전반에서 광범위한 '만능 기능어(Universal Operator)'로 작동한다.

5) Kellerman(1983: 112-134)은 언어 전이가 단순한 구조적 유사성을 넘어 학습자의 인지적 판단이 개입하는 선택적 과정임을 입증하며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 이론을 주장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는 어휘의 일차적이고 원형적인 '핵심 의미(Core meaning, 무표적)'일수록 목표어에 쉽게 전이된다고 인식하는 반면, 관용적이고 확장된 '주변적 의미(Peripheral meaning, 유표적)'는 전이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는 인지적 제약을 갖는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한국어 '있다'의 경우, 핵심 의미(존재/소유)의 매핑이 너무나 확고하고 보조용언으로서의 문법적 기능이 강력하여, 학습자들이 이러한 인지적 제약을 상실한 채 확장된 주변적 기능까지 중국어 '有'에 과잉 전이(과잉 일반화)하는 역설적인 양상을 보인다.

- (1) 만능 기능어로서의 한국어 ‘있다’의 의미망과 목표어 직역의 한계  
 가. 진행상: 밥을 먹고 있다. → 我在吃飯。  
 (학습자 오류 산출: \*我有吃飯。)  
 나. 상태 지속: 꽃이 피어 있다. → 花開着。  
 (학습자 오류 산출: \*花有開。)  
 다. 경험상: 중국에 간 적이 있다. → 我去過中國。  
 (부분적 허용: 我有去過中國。)  
 라. 명사구 수식(예정/계획): 내일 할 거(일이) 있다. → 明天有事要做。  
 (학습자 오류 산출: \*明天有要做。)

2.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어의 ‘有’는 ‘상적 강요’를 통해 사건을 정적 대상으로 포착할 때만 쓰이는 엄격한 화용적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인 학습자들은 두 단어의 기본 의미(존재/소유)가 같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어 ‘있다’의 방대한 의미망(진행상, 상태 지속, 경험상, 예정/계획)을 중국어 ‘有’에 1:1로 덮어씌우는 ‘어휘적 과잉 일반화’ 오류를 범한다.

특히, “지금 뭐 하고 있어?”나 “내일 갈 거(계획) 있어?”와 같이 한국어에서 ‘있다’가 개입된 동태적 문맥을 발화할 때, 학습자는 목표어인 중국어의 화용적 제약(정태성 요구)을 차단하고 모국어의 형태적 대응(있다=有)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한다. MacWhinney(2005)의 통합 경쟁 모델(Unified Competition Model)에 따르면,<sup>6)</sup> 이는 학습자가 목표어 어휘(有)를 모국어(있다)의 기존 개념망에 기생적(parasitic)으로 매핑한 상태에서, 발화 순간 고착화된 모국어의 의미망이 목표어의 통사적 제약보다 더 강하게 경쟁 우위를 차지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결과, 동태적 행위나 주관적 의지를 나타내는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정태적 표지인 ‘有’를 강제 결합시켜, 목표어 문법 체계에서는 성립할

6) MacWhinney(2005: 53-54)의 ‘통합 경쟁 모델(Unified Competition Model)’에 따르면, 제2언어 학습자는 초기 단계에서 목표어의 새로운 어휘나 통사적 형태를 독립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모국어의 기존 개념망과 의미망에 얽어서 습득하는 ‘기생(Parasitism)’ 현상을 겪는다. 본고에서 분석한 한국인 학습자의 ‘有’ 구문 과사용 오류 역시, ‘有’라는 목표어의 형태가 한국어 보조용언 ‘있다’의 거대하고 견고한 매핑 네트워크에 기생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목표어 고유의 화용적 제약(상적 강요)이 인지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발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수 없는 혼종 형태(예: \*明天有去不)를 지속적으로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 3. 한국어 '있다'와 중국어 '有'의 기능 대조 및 오류 기제

제2장에서는 중국어 '有+VP' 구문이 지니는 엄격한 화용적 제약과 모국어 전이의 인지적 메커니즘을 고찰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렌즈를 바탕으로, 오류의 실질적 진원지인 한국어 '있다'와 중국어 '有' 간의 기능적 비대칭성(Asymmetry)과 인지적 충돌 양상을 본격적으로 대조 분석한다.

한국인 학습자가 산출하는 체계적인 '有+VP' 과사용 오류는 단순히 두 어휘를 1:1로 직역해서 생기는 표면적인 어휘 오선택이 아니다. 기존에 HSK 동태 작문 코퍼스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有' 오류를 분석한 연구들(예: Liu Wei·손정애, 2017 등)은 주로 이를 '첨가'와 '누락'이라는 형태적 층위에서 분류하고, 양국어 간의 품사 불일치나 통사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로 진단하는데 머물렀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표면적·통사적 접근을 넘어, 오류의 기저에 작동하는 심층적인 인지·화용론적 기제(Cognitive-Pragmatic Mechanism)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별성을 지닌다. 즉, 본고에서 다루는 학습자의 체계적 오류는 두 언어가 사건의 시간성을 인지하고 대상을 범주화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화용적 충돌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장의 3.1절에서는 먼저 한국어의 존재사이자 시상 체계 전반을 통제하는 만능 보조용언으로서 '있다'가 지닌 광범위한 의미망과 인지적 복잡성을 심층적으로 해부한다. 이어서 두 언어 간의 기능 대조를 통해, 학습자의 인지 공간 내에서 어떠한 방식의 기생적 매핑(Parasitic Mapping)과 어휘적 과잉 일반화가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오류 산출 기제를 추적할 것이다. 본 장에서 도출된 두 언어 간의 인지적·화용적 불일치는 향후 제4장에서 전개될 실제 HSK 코퍼스 데이터의 오류 양상을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 3.1 한국어 존재사/보조용언 '있다'의 광범위성과 인지적 복잡성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의 '있다(Exist/Have)'는 중국어의 '有'나 영어의 'Have/Be'에 비해 통사·의미적 활용 폭이 압도적으로 넓은 어휘이다. 본동사로서 존재와 소유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고도의 문법화(Grammaticalization)를 거쳐 한국어의 시상(Tense-Aspect) 및 양태(Modality) 체계 전반을 담당하는 '만능 기능어'로 작동하기 때문이다(권순구, 2000).<sup>7)</sup>

철학적·어휘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있다'는 단순히 정지된 상태로서의 '소유/존재'에 국한되지 않고, 사태가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연관을 맺는' 근원적 속성을 포괄한다(구연상, 2011; 서동은, 2011). 통사적으로도 '있다'는 결합하는 명사구의 격조사나 논항 구조에 따라 대칭과 비대칭을 넘나들며(이성우, 2020), 소유 구문에서는 주어와 화제의 지위가 요동치고(김천학, 2021), 나아가 기저 품사조차 동사와 형용사의 경계에서 모호성을 띠는 특이성을 지닌다(이성우, 2023).<sup>8)</sup> 즉, 고석주(2007)의 지적처럼 '있다' 자체의 고정된 실체적 의미보다는 주변 논항과 구문 구조에 의해 그 의미가 무한히 확장되는 '텅 빈 도화지'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있다'의 구문적 광범위성은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 더욱 극대화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2) 보조용언 '있다'의 기능적 광범위성

7) 권순구(2000)는 한국어의 '있다'가 어휘적 의미(존재/소유)에서 출발하여, 문맥적 의미의 확장을 거쳐 중국에는 진행과 상태 지속을 나타내는 문법적 표지(상 표지)로 문법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시적·공시적으로 논증하였다.

8) 구연상(2011)과 서동은(2011) 등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있다'의 근원적 역동성을 고찰하였으며, 이성우(2020, 2023)와 김천학(2021)은 '있다'가 취하는 논항의 격 교체(가/가, 이/를 등)와 형용사적/동사적 통사 자질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있다'의 복잡한 통사적 위상을 밝혔다.

- 가. 동태적 진행(Progressive): “-고 있다” 구문은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태적으로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  
(예: 밥을 먹고 있다.)
- 나. 정태적 결과상태(Resultative State): “-어/아 있다” 구문은 동작이 완료된 후 그 결과 상태가 정적으로 지속됨을 나타낸다.  
(예: 벽에 사진이 걸려 있다)
- 다. 과거 경험(Experiential): 의존명사 ‘적’과 결합한 “-ㄴ/은 적이 있다” 구문은 과거 특정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나 경험의 존재를 나타낸다. (예: 중국에 간 적이 있다)
- 라. 미래/가능성/추측: 의존명사 ‘수, 것(거)’ 등과 결합하여 미래의 가능성이나 주체의 의도, 계획 등을 폭넓게 나타낸다.  
(예: 내일 갈 수 있다, 안 갈 거 있어?)

박효정(2025)이 실증하였듯, 외국인 학습자들은 ‘-고 있다’와 ‘-어/아 있다’가 지닌 역동성과 정태성의 층위를 구별하는 데 극심한 혼란을 겪는다.<sup>9)</sup> 그러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이림용·한용수(2019)의 인지문법적 영상도식(Image Schema) 분석처럼, ‘있다’라는 단일 형태 하나로 동태적 미완료와 정태적 완료를 모두 포괄하는 거대한 인지적 스키마를 머릿속에 구축하고 있다.<sup>10)</sup> 결론적으로 한국어 화자의 인지 체계 속에서 ‘있다’는 특정한 상적(Aspectual) 제약 없이 사건의 진행, 완료, 미래 의지 등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매우 유연하고 무제한적인 문법적 장치로 각인되어 있다.

9) 박효정(2025)은 한국어 시상 체계에서 ‘-고 있다’(진행상)와 ‘-어/아 있다’(결과 상태의 지속)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통사·의미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유발하는 고난도 문법 항목임을 실증하였다. 이 연구는 동태성(진행)과 정태성(상태 지속)이라는 완전히 상이한 두 가지 상적(Aspectual) 기능이 형태적으로 동일한 보조용언 ‘있다’ 하나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있다’가 한국어 내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고 복잡한 ‘만능 기능어’로 작동하는지를 방증한다.

10) 이림용·한용수(2019)는 인지언어학의 영상도식 이론을 차용하여, 한국어의 ‘-고 있다’는 경로(Path)를 이동하는 동태적 궤적으로, ‘-어 있다’는 이동을 마치고 랜드마크(Landmark)에 안착한 정태적 상태로 분석하며 두 구문이 단일한 ‘있다’의 인지적 연속선상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 3.2 한국인 학습자의 어휘적 과잉 일반화 및 L1 전이의 높

앞서 2.2절의 언어 간 전이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가 산출하는 ‘有+ VP’ 구문의 과사용 오류는 단순한 문법 지식의 결여가 아니라 초기 학습 단계에서 형성된 ‘긍정적 전이의 착시(Illusion of Positive Transfer)’가 유발한 고도의 인지적 오류이다.

한국어의 ‘있다’와 중국어의 ‘有’는 기본적으로 [존재]와 [소유]라는 핵심 의미를 공유한다. 예컨대 “돈이 있다(有钱)”나 “시간이 있다(有时间)”와 같은 기초 발화 단계에서는 두 언어의 인지적 매핑이 1:1로 일치하여 강력한 긍정적 전이가 일어난다. 그러나 바로 이 초기 단계의 성공적인 발화 경험이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한국어의 ‘있다’는 곧 중국어의 ‘有’와 완벽히 대응한다”는 견고한 과잉 일반화의 틀을 형성해 버린다.

최신혜(2013)와 이문화(2014)의 한-중 대조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는 ‘있다’ 하나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영역을 중국어는 대상의 한정성이나 상적 의미에 따라 ‘有, 在, 着, 了’ 등으로 엄격히 분화하여 사용한다. 그럼에도 한국인 학습자들은 원형적 의미(소유/존재)의 일치에 매몰되어, 모국어 ‘있다’의 확장된 보조용언적 기능마저 중국어 ‘有’에 무분별하게 덮어씌운다. 이는 발화의 순간, 뇌리에 깊게 고착화된 모국어의 방대한 의미망이 목표어의 통사적 제약을 차단해 버리는 기생적 매핑의 전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제2.1절에서 규명하였듯 중국어의 ‘有’는 후행 사건을 ‘확정된 사실’이나 ‘가용성/계획’이라는 정적 대상으로 변환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는 엄격한 ‘상적 강요’ 기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한국어 ‘있다’의 인지적 만능성에 갇힌 학습자들은 이러한 목표어의 화용적 제약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화 현장에서 크게 두 가지 양상의 형태·화용적 충돌(Pragmatic Clash)을 일으킨다.

첫째, [유계성 제약 위반], 즉 비유계적 진행 상황에서의 ‘有’ 남용이다.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진행상 “-고 있다”를 발화할 때, 직역을 통해 “\*我有看书(나는 책을 보고 있다)”와 같은 비문을 생성한다(Liu Wei·손정애, 2017). 이는

중국어 '有'가 요구하는 '사건의 팩트화(완결성)' 제약을 무시한 채, 모국어의 동태적 진행 영상도식을 정태적 표지인 '有'에 강제 결합시켜 발생하는 인지적 매핑 오류이다.

둘째, [정태성 제약 위반], 즉 주관적 미래 의지에서의 '有' 남용이다. 한국어 화자는 미래의 의지나 상황을 물을 때 의존명사 '것(거)'와 '있다'를 결합하여 "안 갈 거 있어?"와 같이 발화한다. 학습자는 이 "거(Thing)+ 있어(Exist)"의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 단순 의지를 묻는 "去不?(갈래?)" 앞에 '有'를 첨가하여 "\*有去不?(갈 거야?)"라는 혼종 형태를 만들어낸다. 원어민이 발화하는 정문인 "明天有去不?(내일 갈 계획 있어?)"가 객관적인 '계획'의 존재를 묻는 정태적 질문이라면, 학습자의 오류는 주체의 즉흥적이고 '동태적 의지'에 '有'를 억지로 끼워 넣음으로써 발생한 화용적 층위의 붕괴이다.

이렇듯 상과 논항 구조의 언어 간 매핑은 고급 학습자도 극복하기 힘든 최상위 난도의 인지적 과제이다. 실제로 박미은·이규민(2025)은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분석을 통해 '있다'와 관련된 오류 중 '상'과 '논항 구조' 오류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함을 실증하였다. 또한 조용준·고나(2015)는 수용성 판단 과제를 통해 중국인 고급 학습자조차 한국어 결과 상태 표지 '-어 있다'의 통사·상적 제약을 완벽히 습득하지 못함을 밝혔다. 비록 이 두 선행 연구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역으로 한국어 '있다'를 활용한 상의 운용이 얼마나 고난도의 인지적 과제인지, 그리고 한-중 양국의 상 체계 간 인지적 불일치가 얼마나 좁히기 힘든 간극인지를 양방향으로 입증한다. 이는 한국인 화자가 중국어 '有'를 습득할 때, 자신이 가진 복잡한 '있다'의 제약을 목표어에 투사함으로써 겪게 되는 인지적 과부하와 부정적 전이의 필연성을 훌륭하게 뒷받침하는 강력한 실증적 근거가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인 학습자의 '有+VP' 구문 과사용은 단순한 어휘의 오선택이 아니라, 한국어 '있다'의 인지적 만능성에 기대어 중국어 '有'가 지닌 '상적 강요 및 대상화 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필연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적 전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4. 학습자 오류 데이터 실증 분석

본 연구는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위성을 배제하고, 학습자들의 자연스러운 중간언어(Interlanguage) 발화 체계를 관찰하기 위해 북경어언대학(北京語言大學)에서 구축한 ‘HSK 동태 작문 코퍼스(HSK動態作文語料庫)’를 주된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본 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코퍼스 추출 및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퍼스 내 피험자의 국적을 ‘한국(韓國)’으로 한정하고, 검색어 ‘有’를 활용하여 동사 앞에 ‘有’가 비문법적·화용적으로 결합된 오류 문장(‘有+VP’ 구문)을 전수 조사하여 추출한다.

둘째, 추출된 비문들을 앞서 도출한 본고의 이론적 분석 틀에 따라 ‘유계성 제약 위반(4.1절)’과 ‘정태성 제약 위반(4.2절)’의 두 가지 층위로 범주화하고, 그 이면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한국어 ‘있다’의 기생적 매핑 기제를 대조 분석한다.

셋째, 도출된 인지적 오류 기제를 종합하여, 향후 제5장에서 전개될 모어 간섭 차단 및 인지언어학 기반의 단계별 교학 방안(Pedagogical Intervention)을 모델링하기 위한 견고한 실증적 토대를 마련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본 연구는 코퍼스에서 단순한 어휘 오기나 부주의로 인한 표면적 오류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모국어의 인지적 전이’가 명확히 개입된 핵심 타깃 데이터만을 엄격하게 필터링하여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본 장의 분석은 거시적인 통계적 빈도를 나열하는 평면적·양적 접근을 지양하는 대신, 학습자의 개별 발화 맥락 이면에 숨겨진 ‘유계성 및 정태성 제약 위반’의 인지적 기제를 현미경처럼 정밀하게 해부하는 미시적·질적 사례 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 4.1 [오류 유형1] 유계성 제약 위반

제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중국어의 '有'는 이미 발생한 [+ 실현(Realis)] 영역에서 쓰일 때 동태적 사건을 '확정된 팩트'로 대상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작이 완결되어 시간적·공간적으로 뚜렷한 경계를 갖는 유계 사건(Bounded Event)이어야 한다는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sup>11)</sup> 그러나 코퍼스 분석 결과, 한국인 학습자들은 사건의 끝을 알 수 없는 비유계적 동작(Unbounded Activity)이나 단순 상태의 지속 맥락에 정태적 표지인 '有'를 강제 결합하는 오류를 빈번하게 산출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 실현] 및 '유계성 제약'을 인지하지 못한 채, 모국어 진행상('-고 있다') 및 상태 지속('-어/아 있다')의 개방된 영상도식을 '有' 구문에 그대로 덮어씌운 결과이다.

(1) [진행상의 직역]

가. 학습자 비문: \*因宿舍每天都有提供三餐。

나. 목표어 정문: 因宿舍每天都(在)提供三餐。

(기숙사에서 매일 세 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2) [결과상태 지속의 직역]

가. 학습자 비문: \*兩個人之間有發生了誤解。

나. 목표어 정문: 兩個人之間發生了誤解。

11) 유계성(Boundedness)이란 사물이나 사건이 공간적, 시간적, 또는 인지적으로 뚜렷한 경계(Boundary)를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沈家煊(1995)은 중국어의 명사와 동사가 공유하는 인지적 자질로서 유계(有界)와 무계(无界)의 대립을 제시하였다. 명사에서 '한 권의 책'이 유계라면 '물'은 무계인 것과 같이, 동사에서도 '사건이 완결되어 하나의 팩트로 고정된 상태'는 유계적 사건으로, '끝이 정해지지 않은 지속적인 동작이나 상태'는 비유계(무계)적 사건으로 범주화된다. 중국어의 '有'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유계적 실체를 자신의 논항으로 요구하는 화용적 제약을 갖는다.

본고에서 전통적인 서양 언어학의 '중결성(Telicity, Vendler 1967)' 대신 沈家煊(1995)의 '유계성' 개념을 분석 틀로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결성이 동사 자체의 내재적·어휘적 자질에 국한된 개념이라면, 유계성은 동사의 종류와 무관하게 구문 전체가 구성하는 시공간적 경계와 인지적 범주화(예: 진행 중인 상황은 무계, 완료된 팩트는 유계)를 포괄하는 구문론적·인지적 자질이기에 때문이다. 한국인 학습자의 '有' 오류는 단순한 어휘적 충돌이 아니라, 진행상(-고 있다)이라는 개방된 '무계(无界)적' 상황을 '有'라는 '유계(有界)적' 틀에 강제로 집어넣으려다 발생하는 인지·구문적 충돌이므로 본고에서는 '유계성' 용어를 사용한다.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발생해 있다(혹은 발생한 적 있다).

(3) [반복적 습관의 직역]

가. 학습자 비문: \*爲了減肥, 我最近每天晚上有運動。

나. 목표어 정문: 爲了減肥, 我最近每天晚上在運動。

(다이어트를 위해 나는 요즘 매일 저녁 운동하고 있다.)

위 예문들은 모두 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시간 축 위에서 흘러가거나(예문 1, 3), 동작 자체는 끝났으나 그 결과 상태가 무한히 지속되는(예문 2) 전형적인 ‘비유계적’ 상황이다. 한국어 화자는 이러한 무계(無界)적 상황을 표현할 때 보조용언 구성인 “-고 있다(진행/습관)”와 “-어/아 있다(상태 지속)”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사용한다.

예컨대 (예문 1)의 ‘提供(제공하다)’과 (예문 3)의 ‘運動(운동하다)’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반복되는 습관을 나타내는 행위 동사로, 중국어 문법 체계에서는 아무런 표지를 두지 않거나 진행 표지 ‘在/正在’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 학습자의 인지망 속에서 이 상황은 “제공하-고 있다”, “운동하-고 있다”라는 모국어의 포괄적인 진행상 스키마와 강하게 결합된다. 그 결과, 목표어의 상 표지를 정확히 선택하지 못하고 모국어 ‘있다’에 직역 대응하는 ‘有’를 무분별하게 차용하게 된다. 이는 사건이 팩트화되어 닫혀야 하는 [+실현]의 유계적 흐름 속에 정태적 표지인 ‘有’를 억지로 끼워 넣어 목표어의 ‘상적 강요 제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어휘적 과잉 일반화의 오류이다.

마찬가지로 (예문 2)의 경우, 학습자는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겼고 그 양금이 풀리지 않은 채 유지되는 ‘결과 상태의 지속’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한국어로는 “오해가 발생해 있다”로 자연스럽게 발화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떤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곧 시간적 경계가 닫히지 않은 개방적 상황을 의미한다. 이미 [+실현]을 확정 짓는 조사 ‘了(발생했다)’가 결합되어 구문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 ‘-어 있다’의 의미망에 갇힌 학습자가 팩트를 한 번 더 대상화하려는 유계 표지 ‘有’를 불필요하게 첨가함으로써 심각한 상적 충돌(Aspectual Clash)을 일으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류 유형1]의 산출 양상은, 학습자가 발화 현장에서 [+ 실현]을 나타내는 완료의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有'가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유계성(경계 닫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한국어 '있다'의 광범위한 쓰임에 압도된 학습자는, 동작이 흘러가거나 상태가 지속되는 '무계(无界)적 상황을 [+ 실현]의 '유계(有界)적 틀에 억지로 집어넣는 심각한 인지적 충돌을 겪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법 규칙의 망각이 아니라, 모국어의 개념망이 목표어의 통사적 제약을 무력화시키는 전형적인 기생적 매핑(Parasitic Mapping)의 결과라 할 수 있다.

HSK 동태 작문 코퍼스에서 엄격한 필터링을 거쳐 추출된 핵심 오류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오류의 양상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모국어 '있다'의 인지적 간섭에 의한 체계적인 중간언어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표 1〉 HSK 동태 작문 코퍼스 내 한국인 학습자 '有+VP' 구문 오류 유형 및 대표 사례

오류 범주	모국어 전이 기제 (원인)	코퍼스 내 대표 산출 사례
[유형 1] 비유계 진행/상태 (유계성 제약 위반)	한국어 보조용언 '있다' 직역 ('-고 있다', '-어/아 있다')	가. 因宿舍每天都有提供三餐。 나. 两个人之间有发生了误解。 다. 妈妈有故意没告诉我。
[유형 2] 동태적 미래/의지 (정태성 제약 위반)	한국어 심리·속성 객체화 직역 ('-이/가 있다', '-르 거 있어')	가. 他们很有关心我要学习的方面。 나. 我对贵公司有很感兴趣。 다. 您对我的爱是有多么的伟大啊!
[기타 오류]	단순 과거 오용 및 기타 어휘적/통사적 혼동	가. 那样的话发生有很多问题。 나. 对公众利益都有的影响很大。 다. 空间里也有发生了意外的事情。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추출된 핵심 타깃 데이터의 주된 양상은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인 '유계성 제약 위반'과 '정태성 제약 위반'으로 뚜렷하게 수렴된다. 이는 단순한 문법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모국어 '있다'의 방대한 인지적 스키마가 작문 현장에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목표어에 간섭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방증한다.

다만 분석 과정에서, 모국어 ‘있다’의 화용적 직역에 의한 인지적 오류가 아니라 목표어(중국어) 내의 문법 구조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해 두 개의 구문을 불완전하게 결합한 ‘구문 융합(Syntactic Blend)’ 및 단순 통사적 혼동 양상도 일부 관찰되었다. 이러한 [기타 오류]의 산출 양상은 다음과 같다.

(4) 구문 융합에 의한 동사 충돌

가. 학습자 비문: \*那樣的話發生有很多問題。

나. 목표어 정문: 那樣的話會發生很多問題。(또는 有很多問題。)

(그렇게 되면(그런 식이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오류는 학습자의 뇌리에 ‘发生很多问题(문제가 발생하다)’라는 동사구와 ‘有很多问题(문제가 많다)’라는 존재 구문이 동시에 떠올랐으나, 이를 통사적으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두 동사(\*发生+有)를 나란히 충돌시켜 산출해 낸 전형적인 구문 융합 사례이다.

(5) 수식 구조의 과잉 혼합

가. 학습자 비문: \*吸烟...對公衆利益都有的影響很大。

나. 목표어 정문: 吸烟...對公衆利益都有很大的影響(또는 影響很大)。

(흡연은... 공공의 이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위 예문 역시 명사를 수식하는 존재 구문인 ‘有很大影响(큰 영향이 있다)’ 과 형용사 술어 구문인 ‘影响很大(영향이 크다)’의 구조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두 형태를 하나로 섞어버림으로써 발생한 형태·통사적 혼동이다.

(6) 단순 시제 표지와 중복 오용

가. 학습자 비문: \*在我們的生活空間里也有發生了意外的事情。

나. 목표어 정문: 在我們的生活空間里也發生了意外的事情。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도 뜻밖의 일(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어에서 단순한 과거 사건의 발생은 동태조사 ‘了’를 통해 나타낸다. 위 예문의 학습자는 이미 ‘发生了’를 통해 과거의 실현을 올바르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습관적으로 ‘有’를 불필요하게 첨가하였다. 이는 남방(대만)식 중국어 구어의 무분별한 모방이거나, ‘有意外的事情(의외의 사건이 있다)’ 구문이 융합되어 나타난 통사적 잉여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기타 오류]들은 모국어의 깊은 인지적 간섭이라기보다는, 목표어 문법 구조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표면적인 ‘형태·통사적 층위(Morpho-syntactic Level)’의 문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와 구별되는 ‘인지·화용론적 층위(Cognitive-pragmatic Level)’에서의 기생적 매핑(모국어 전이)을 밝히는 데 있다. 따라서 본고의 핵심 논의는 이러한 단순 표면 오류를 배제하고, 앞서 규명한 두 가지 핵심 제약 위반(유계성, 정태성)의 인지적 기제를 집중적으로 심층 해부하고자 한다.

#### 4.2 [오류 유형2] 정태성 제약 위반

앞서 4.1절에서 살펴본 오류가 시간 축 위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팩트로 묶어내려 한 [+실현(Realis)] 영역에서의 ‘유계성’ 충돌이었다면, 코퍼스 분석에서 나타난 또 다른 심각한 화용론적 충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실현(Irrealis)]의 미래 영역이나 화자의 주관적·내면적 심리 영역에서 정태적 표지 ‘有’를 남용하는 현상이다.

제2장에서 규명하였듯, 중국어의 ‘有’는 [-실현] 영역에서 사용될 때 후행 사건을 단순한 동태적 의지가 아닌 ‘확정된 계획’이나 ‘객관적 가용성’이라는 정태적 속성으로 변환하는 강력한 제약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인 화자의 인지 망 속에서 ‘있다’는 “내일 갈 거 있어?(미래 의지)”, “나는 관심이 있어(주관적 심리)”와 같이, 동태적인 주관적 결심이나 추상적인 감정 상태마저 하나의 명사적 객체로 취급하여 존재 구문으로 담아내는 광범위한 포용력을 지닌다.

본 연구의 코퍼스 실증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특유의 ‘객체화

(Objectification)’ 습관이 중국어의 정태성 제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즉, [-실현] 영역에서의 주관적 의지와 추측을 직역하는 오류와 더불어, 심리 동사와 형용사 앞에서 주관적 상태를 정적 소유물로 착각하여 ‘有’를 남용하는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7) [심리 동사의 직역]

- 가. 학습자 비문: \*他們很有關心我要學習的方面。  
(그들은 내가 공부하려는 분야에 매우 관심이 있다.)
- 나. 목표어 정문: 他們很關心我要學習的方面。  
(그들은 내가 공부하려는 분야에 매우 관심을 가진다.)
- 다. 학습자 비문: \*我對貴公司有很感興趣。  
(나는 귀사에 매우 흥미가 있다(혹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8) [상태 형용사의 직역]

- 가. 학습자 비문: \*您們對我的愛是有多麼的偉大啊!  
(저에 대한 당신들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함이 있는지요!)
- 나. 목표어 정문: 您們對我的愛是有多麼的偉大啊!  
(저에 대한 당신들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나요!)

(9) [주관적 추측의 직역]

- 가. 학습자 비문: \*這麼晚了他還沒回來, 是不是有發生什么事了?  
(이렇게 늦게까지 안 오는 걸 보니, 무슨 일 생-긴/길 거 있어?)
- 나. 목표어 정문: 這麼晚了他還沒回來, 是不是發生什么事了?  
(이렇게 늦게까지 안 오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냐?)

중국어에서 ‘关心(관심을 가지다)’, ‘感兴趣(흥미를 느끼다)’와 같은 심리 동사나 ‘伟大(위대하다)’와 같은 형용사는 화자의 주관적인 내적 상태나 대상의 본질적 속성을 직접 서술하는 자립적인 술어이다. 이들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소유하거나 그 존재 유무를 따질 수 있는 ‘정태적 실체’가 아니므로, 객관적 팩트나 대상화를 요구하는 ‘有’의 상적 강요 제약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예문 7)에서 관찰되듯, 한국인 학습자들은 주관적인 심리 작용조차

“관심(이라는 대상)이 있다”, “흥미(라는 감정)가 있다”처럼 추상적 감정을 하나의 명사적 사물로 물화하여 소유/존재의 틀로 인지하는 모국어의 강력한 습관을 지니고 있다. 심리 상태를 동태적으로 직접 서술하기보다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정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한국어 특유의 존재론적 스키마가 중국어 심리 동사 앞에 ‘有’를 억지로 첨가하게 만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문 8)의 형용사 오용 역시 동일한 인지적 오류의 연장선에 있다. 대상의 속성을 묘사할 때 중국어는 형용사(伟大)를 술어로 삼아 직접 서술하지만, 학습자는 이를 “위대-함-이 있다”처럼 모국어의 명사화 파생 기제를 거쳐 대상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대상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본질적 속성(위대함)을 분리해 내어, 마치 외부에서 가질 수 있는 정적 소유물인 것처럼 ‘有’를 강제 결합시키는 화용적 층위의 붕괴를 일으킨 것이다.

나아가 (예문 9)은 이러한 명사적 대상화 습관이 화자의 ‘주관적 추측(Epistemic Modality)’에까지 확장된 결과이다. 목표어 정문은 ‘是不是(아닌가?)’라는 부사어와 동사 ‘发生(발생하다)’을 결합하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의구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학습자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추측마저도 “무슨 일이 생-긴(길) 것(거)이 있다”라는 모국어의 명사구(NP) 존재 구문으로 변환하려 시도하였다. 확정되지 않은 주관적 명제를 ‘有’라는 정태적 표지 안에 가두려 함으로써, 목표어의 화용적 제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은 이러한 모국어의 명사적 객체화(‘것/함/기’)와 ‘있다’가 결합된 구조를 중국어로 과잉 번역(Over-translation)함으로써 비문법적인 혼종 형태를 산출한다. 이는 주관적 심리와 내재적 속성마저 객관적 팩트나 정태적 실체로 치환하려는 모국어의 ‘존재론적 층위(Existential Level)’를 목표어에 무리하게 투사한 결과이며, ‘有’가 지닌 정태성 및 대상화 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체계적인 인지적 매핑 오류임을 입증한다.

#### 4.3 [대조 분석] 과거 경험 구문에서의 긍정적 전이 양상

앞선 4.1절과 4.2절에서 한국인 학습자들이 비유계 진행 상황과 주관적 심리/의지 상황에서 ‘有’를 남용하는 치명적인 오류(부정적 전이)를 범함을 실증 데이터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HSK 코퍼스 분석 결과, 학습자들이 모든 상황에서 ‘有+VP’ 구문을 오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한국어의 과거 경험을 나타내는 “-ㄴ 적(이) 있다” 구문을 중국어로 작문할 때는 원어민의 화용적 직관에 완벽히 부합하는 정문을 산출해 낸다는 것이다.

(10) [과거 경험의 정용(正用)]

가. 학습자 작문(정문): 媽媽有故意沒告訴我。

(엄마가 일부러 나에게 말하지 않은 적이 있다 / 않은 사실이 있다)

나. 학습자 정문: 我以前有去過台灣, 那里的夜市很有名。

(나는 예전에 대만에 간 적이 있다. 그곳의 야시장은 매우 유명하다.)

(예문 10-가)의 경우, 학습자는 “엄마가 일부러 말하지 않은 사실(적)이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과거에 이미 발생하여 종결된 확정적 사실을 명사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한국어 ‘-ㄴ 적(사실)이 있다’의 구조가, 중국어 ‘有’가 요구하는 ‘사건의 팩트화(대상화)’ 제약과 우연히 일치하여 올바른 목표어 문장으로 산출된 것이다. (예문 9-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학습자는 ‘대만에 다녀온 경험’이라는 뚜렷한 시간적 경계를 가진 유계 사건을 소유의 개념으로 표현하기 위해 한국어 ‘-(으)ㄴ 적이 있다’를 중국어의 ‘有+V+過’ 구조에 그대로 대입하였다. 두 언어가 과거 사건을 인지하고 범주화하는 방식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과거 경험을 표현할 때 긍정적 전이를 일으키는 이유는, 한국어 “-ㄴ 적(이) 있다”의 인지적 구조가 중국어 존재 표지 ‘有’가 요구하는 ‘상적 강요’ 제약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첫째, ‘경험’이라는 개념은 이미 과거에 발생하여 종결된 사건이므로 뚜렷

한 경계를 갖는 유계 사건이다. 둘째, 화자의 인지 속에서 과거의 경험은 흘러가는 동태적 행위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소유할 수 있는 정태적 팩트이자 명명 가능한 대상(의존명사 '적')으로 존재한다. 즉, 한국어 화자가 “-ㄴ 적이 있다”를 발화할 때 머릿속에 그리는 ‘경험이라는 대상의 존재’가, 중국어 ‘有’가 사건을 정태적 대상으로 포착하여 진리치를 부여하는 화용론적 기능과 정확히 맞물려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한국어 ‘있다’를 중국어 ‘有’로 1:1 직역하더라도, 이 맥락에서는 목표어의 화용적 제약을 위반하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긍정적 전이를 일으킨다.

결론적으로 이 대조군의 존재는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을 더욱 날카롭게 방증한다. 한국인 학습자의 ‘有’ 남용 오류는 단순히 어휘 지식이 부족해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경험(유계성/정태성 충족)에서는 긍정적 전이를 일으키면서도, 유독 비유계 진행 상황과 정태성이 결여된 주관적 심리/의지에서만 오류가 집중된다는 실증 데이터는, 학습자들이 중국어 ‘有’의 본질적인 ‘상적 강요(사건의 대상화)’를 인지하지 못한 채 모국어 ‘있다’의 형태적 껍데기만 기계적으로 차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 할 수 있다.

## 5. 인지언어학 기반 ‘有+VP’ 구문 교학 방안

제4장의 코퍼스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국인 학습자가 산출하는 ‘有+VP’ 구문의 과사용이 단순한 문법적 실수가 아니라 목표어의 ‘유계성’ 및 ‘정태성’ 제약을 위반한 심각한 인지적 매핑 오류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화용론적 충돌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고 긍정적 전이를 유도하기 위해, 단순한 형태·통사적 규칙 암기를 넘어선 ‘인지 화용론적 교학 방안 (Cognitive-Pragmatic Pedagogical Approach)’을 3단계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이토록 모국어 ‘있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중국어 교육 과정과 시판 교재들이 ‘有’의 기능에 대해 매우 파편적이고 평면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활용되는 대다수의 초·중급 중국어 교재에서 ‘有’는 철저히 전통적 문법 범주에 갇혀 있다. 단순한 소유나 존재를 나타내는 본동사(예: 我有书)로만 제시되거나, 기껏해야 과거 경험 표지(예: 去过)와 결합하는 정도로 그 쓰임이 축소되어 교육된다. 나아가 부정문과 의문문 교육에서도 “과거를 부정/질문할 때는 ‘没(有)’를, 현재나 미래는 ‘不’를 쓴다”는 식의 기계적이고 시제 중심적인 이분법적 도식만을 주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 구어 발화 현장에서 폭넓게 출현하는 ‘有+VP’ 관련 구문들은 결코 단순한 시제 표지가 아니다. 앞선 2장과 4장에서 규명하였듯, 이는 후행하는 동태적 사건을 ‘확정된 팩트(유계성)’나 ‘객관적 가용성(정태성)’이라는 대상으로 변환시켜 진리치를 묻는 고도의 ‘상적 강요’ 기제이다.

교육 현장에 이러한 심층적인 화용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보니, 학습자들은 발화 순간의 의미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상 체계 전반을 통제하는 만능 보조용언 ‘있다(진행, 상태, 미래 의지 등)’의 방대한 영상도식을 목표어에 무분별하게 덮어씌울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작금의 ‘有+VP’ 과사용 오류는 학습자 개인의 단순한 부주의나 문법 지식 결여가 아니라, ‘화용적 입력(Pragmatic Input)’이 결여된 기존의 1차원적 교육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이고 구조적인 L1 부정적 전이의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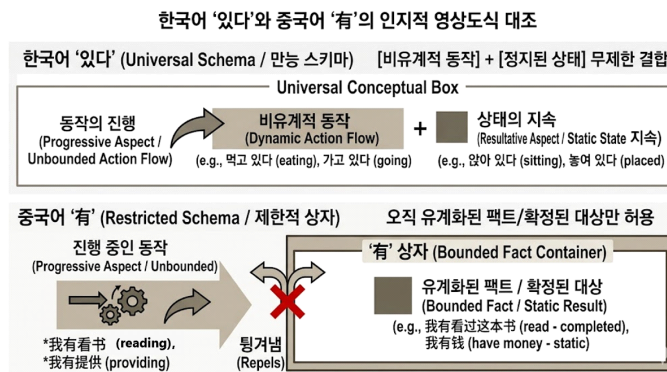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의 형태 및 시제 중심 교육이 지닌 한계를 탈피하여, 학습자의 인지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즉, 학습자가 목표어를 산출할 때 사건을 ‘동태적으로 흘러가는 행위(-고 있다)’나 ‘추상적 속성(-함이 있다)’이 아니라, 뚜렷한 경계를 가진 ‘정태적 대상(존재)’으로 포착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이끄는 단계별 인지 화용론적 교학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 5.1 1단계: 모국어 간섭 배제를 위한 '탈동기화' 전략

앞선 오류 분석에서 규명하였듯, 한국인 학습자가 겪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 기제는 발화 현장에서 한국어 '있다'와 중국어 '有'를 1:1로 직역하는 어휘적 과잉 일반화이다. 따라서 교학의 첫 단계는 학습자의 인지 체계 속에서 두 어휘 간에 맹목적으로 형성된 연결 고리를 명시적으로 단절(Decoupling)시키는 '탈동기화((Desynchronization)'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태적 행위가 전개되는 '서술적 층위'와 멈춰있는 사물이나 팩트를 포착하는 '존재론적 층위'를 인지문법의 '무대 모델(Stage Model)'과 영상도식(Image Schema)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분리하여 제시한다.

<그림 1> 한국어 '있다'와 중국어 '有'의 인지적 영상도식 대조



이러한 시각적 대조 도식을 통해, 교사는 학습자에게 중국어의 '有'가 움직이는 동작, 즉 진행 중이거나 지속되는 비유계적 행위(예: 吃(먹다), 看(보다), 找(찾다), 等(기다리다), 学习(공부하다) 등)의 흐름에는 결합할 수 없는 강력한 정태적·유계적 표지임을 직관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

이처럼 모국어의 방대한 의미망에서 목표어의 엄격한 제약을 분리해 내는

1단계의 탈동기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앞서 4.1절에서 확인된 비유계적 진행 상황에서의 남용 오류(예: \*我有看电视(TV를 보-고 있다), 我有找钥匙(열쇠를 찾-고 있다), \*我有等你(너를 기다리-고 있다) 등)가 발생하는 인지적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 5.2 2단계: 존재론적 총위의 화용 기능 교수 - '팩트'와 '가용성'

1단계의 인지적 탈동기화를 통해 모국어의 간섭을 걷어냈다면, 2단계에서는 중국어 '(有)+V' 구문이 지닌 본질적인 화용 기능을 목표어의 체계 속에서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앞선 4장에서 분석한 '평서문'에서의 오류 양상과, 기존 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의문/부정문'의 기계적 시제 대조를 아울러, '有'가 동태적 사건을 어떻게 정태적 실체로 '대상화'하는지 명시적으로 교수해야 한다.

### 가. 평서문 영역: 비유계 진행/상태(서술적 총위) vs. 과거 경험(존재론적 총위)

가장 먼저 4.1절에서 확인된 평서문에서의 과사용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교사는 동태적으로 흘러가는 '진행'과 팩트로 굳어진 '경험'을 대조하여 '有'의 상적 강요 제약을 가르친다.

(11) [평서문 대조] 비유계 진행 상황 vs. 유계화된 과거 경험

A. (진행/서술적 총위 - 有 결합 불가): 每天都(在)提供三餐。

(매일 3식을 제공하고 있다.) \*有提供 (비문)

B. (경험/존재론적 총위 - 有 결합 가능): 以前有去過台灣。

(예전에 대만에 간 적이 있다.)

이 대조를 통해, 한국어는 '제공하-고 있다'와 '간 적-이 있다' 모두에 '있다'를 쓸 수 있지만, 중국어 '有'는 A처럼 열려있는(비유계적) 상황에는 결합할 수 없고, B처럼 완료되어 뚜렷한 경계를 가진 '팩트(경험)'에만 결합할 수

있음을 직관적으로 이해시킨다.

**나. 의문/부정문 [+실현] 영역: 단순 발생(서술적 층위) vs. 팩트 확인(존재론적 층위)**

나아가 의문문과 부정문 교육에 있어서도 ‘과거는 没’라는 1차원적 공식을 탈피하여, 단순한 행위의 발생 여부와 명제의 진리치를 따져 묻는 화용적 차이를 대조한다.

(12) [의문문 대조: +실현] 단순 발생 여부 vs. 확정된 팩트 확인

A. (서술적 층위 - 단순 발생): 你昨天去没? (어제 갔어?)

B. (존재론적 층위 - 팩트 확인): 你昨天有去没?

(어제 간 거 맞아? / 간 사실이 있어?)

‘有+V+没?’ 구문은 상대방에게 단순한 정보(발생 여부)를 묻는 중립적 질문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팩트가 확실히 존재하는가?”를 강하게 확인하는 고도의 화용적 장치이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有’가 사건을 기정사실화하여 묶어두는 ‘대상화’ 기제임을 깨닫게 된다.

**다. 의문/부정문 [-실현] 영역: 주관적 의지 vs. 객관적 가용성**

마지막으로 흔히 비문으로 오해받기 쉬운 ‘有+V+不’ 구문이 원어민의 인지방에서 허용되는 정확한 화용적 맥락을 교수한다. 화자의 주관적 의지를 묻는 상황(정태성 위반)에서는 ‘有’를 쓸 수 없음을 강조하고, 확정된 객관적 가용성을 물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됨을 가르친다.

(13) 의문/부정문 [-실현] 영역: 주관적 의지 vs. 객관적 가용성

A. (주관적 의지 - 有 결합 불가): 你去不? (너 갈래? / 갈 거야?)

\*你有去不? (비문)

B. (객관적 가용성 - 有 결합 가능): 明天有去釜山的客車不?

(내일 부산 가는 버스편 있나요?)

이 대조를 통해 학습자는 미래 영역([-실현])이라 할지라도, 주관적인 ‘동태적 의지’일 때는 ‘有’의 상자가 이를 튕겨내지만(A),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태적 가용성’ 형태일 때(B)는 비로소 ‘有’의 상자에 담길 수 있음을 직관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 5.3 3단계: 청크 기반 공기 훈련과 화용적 역할극

앞선 1, 2단계를 통해 목표어의 제약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마쳤다면,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러한 화용적 규칙을 학습자의 내재적 지식으로 자동화하기 위한 연어(Collocation) 중심의 ‘덩어리(Chunk) 훈련’과 ‘실제 상황 부여’가 요구된다.

첫째, 유계성 제약 내재화를 위한 ‘청크 훈련’을 실시한다. 학습자들이 비유계 동작(진행 등)에 ‘有’를 남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교사는 ‘有’를 단순 동사(V)와 날개로 결합시켜 교육하지 않아야 한다. 대신, 사건의 유계성(경계 단합)을 형태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결과보어나 방향보어를 처음부터 결합하여, [有 + V + 결과/방향보어]라는 하나의 굳어진 평서문 청크 단위로 입력하고 훈련시킨다.

(14) 연어 중심 청크 훈련 예시

- A. 비문 (비유계적 동작 남용): \*有看 (보-고 있다), \*有找 (찾-고 있다)
- B. 정문 (유계화된 팩트 결합): 有看到 / 有看完 (본 사실이 있다 / 다 본 사실이 있다)
- C. 정문 (유계화된 팩트 결합): 有找到 (결국 찾아낸 사실이 있다)

둘째, 화용적 뉘앙스 체화를 위한 상황별 ‘역할극(Role-play)’을 실시한다. 형태적 훈련에 이어, 단순한 문법 번역 연습을 탈피하고 실제 발화 맥락을 체화하게 한다. 화자의 특정 의도(의심, 재차 확인, 정보 탐색 등)가 강하게 개입된 상황(Context)을 부여함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 사건을 대상화하여 발

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14) 화용적 뉘앙스 체득을 위한 상황별 역할극 시나리오

A. [상황 1]: 완료된 팩트의 강한 주장 및 해명 - [有+V+보어] 평서문

A'. 맥락: 직장 상사가 “왜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는 상황. 학습자는 단순히 동작이 진행 중(-고 있다)인 것이 아니라, 어제 이미 제출을 끝냈다는 ‘확정된 팩트’를 강하게 방어하고 주장해야 함.

A". 經理, 我昨天確實有交完那份報告。

(매니저님, 저 어제 그 보고서 확실히 제출(완료한 사실) 했는데요.)

B. [상황 2]: 유계화된 과거 경험의 대상화 - [有+V+過] 평서문

B'. 맥락: 입사 면접에서 면접관이 지원 분야와 관련된 이력이 있는지 묻는 상황. 4.3절에서 도출된 긍정적 전이 기제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과거 업무 경험을 뚜렷한 경계를 가진 ‘정태적 소유물(경험적 자산)’로 대상화하여 어필한다.

B". 목표 발화: 我以前在別的公司有負責過類似的營銷項目。

(저는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마케팅 프로젝트를 맡아본 적이 있어요.)

C. [상황 3]: 팩트의 강한 추궁 및 확인 [有+V+沒?]

C'. 맥락: 취조실의 형사가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추궁하는 상황. 단순히 행위의 발생(“만났어?”)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존재하는지를 강하게 압박하며 묻는다.

C". 목표 발화: 你昨天到底有碰見他沒?

(너 어제 대체 그 사람 만난 사실이 있어, 없어?)

D. [상황 4]: 객관적 가용성 탐색 [有+V+不?]

D'. 부여된 맥락: 고객이 여행사 카운터에서 이번 주말에 출발하는 패키지여행 상품의 존재 여부를 묻는 상황. 개인의 즉흥적·주관적 의지가 아닌, 시스템상으로 이미 확정되어 이용 가능한 ‘객관적 일정’을 탐색한다.

D". 목표 발화: 這個周末有出發去北京的旅行團不?

(이번 주말에 북경으로 출발하는 여행 상품 있나요?)

이러한 4가지의 입체적인 역할극 훈련을 거침으로써, 학습자들은 ‘有’가 기계적인 시제 표지가 아니라 발화자의 강력한 화용적 의도(대상화 및 기정사실화)를 담아내는 틀임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有+VP’ 구문 교육의 패러다임은 형태적 오류를 수동적으로 교정하는 1차원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는 학습자가 동태적으로 흘러가는 사건을 인지 공간 내에서 ‘정태적 대상(존재)’으로 묶어내어 포착하는, 중국어 특유의 존재론적·화용적 시각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 제안한 3단계의 인지 화용론적 교학 방안을 통해, 학습자들은 모국어 ‘있다’의 맹목적인 형태적 굴레에서 벗어나 목표어가 요구하는 진정한 화용론적 층위(Pragmatic Level)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6. 결론

본고는 현대 중국어 구어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는 존재론적 화용 표지 ‘有+VP’ 구문이 한국인 학습자에 의해 과사용 및 오용되는 인지적 기제를 대규모 학습자 코퍼스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지 화용론적 교학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학술적·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한국인 학습자의 ‘有’ 과사용은 단순한 어휘 오선택이 아니라, 모국어 ‘있다’의 광범위한 기능망을 목표어에 그대로 투사하여 발생하는 심층적인 ‘부정적 전이(Negative L1 Transfer)’의 결과이다.

본 연구가 HSK 동태 작문 코퍼스를 정밀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동작의 끝을 알 수 없는 비유계 상황(진행 및 상태 지속)과 화자의 주관적 미래 의지를 나타내는 동태적 맥락에 정태적 표지인 ‘有’를 강제 결합하는 두 가지 핵심 오류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만능 기능어로 작동

하는 한국어 보조용언 '있다'의 형태적 익숙함에 이끌려 발생한 전형적인 어휘적 과잉 일반화 현상이다.

둘째, 이러한 화용적 충돌은 목표어 '有'가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심층적인 '상적 강요' 및 '대상화' 제약을 학습자가 인지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중국어 '有'는 후행 사건을 흘려가는 동태적 행위가 아닌, '확정된 팩트'나 객관적 '가용성/계획'이라는 정태적 대상으로 변환할 때만 결합이 허용된다. 그러나 기존의 중국어 교육은 '없는 과거, 없는 미래'라는 평면적인 시제 도식에 갇혀 이러한 존재론적 층위의 화용 규칙을 전혀 교수하지 못했다. 반면, 유계성과 정태성 제약이 완벽히 충족되는 과거 경험 구문("有적 있다")에서는 학습자들이 완벽한 정문을 산출하며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를 일으킨다는 실증적 발견은, 본 연구의 인지·화용론적 분석 틀이 타당함을 역으로 강력하게 입증한다.

셋째, 본 연구는 단순한 형태적 오류 교정을 넘어, 인지 화용론에 기반한 3단계 맞춤형 교학 방안을 제안하였다.

모국어 '있다'와의 맹목적인 인지적 연결 고리를 끊어내는 시각적 '탈동기화' 전략을 시작으로, [+실현] 영역에서의 '팩트 확인'과 [-실현] 영역에서의 '객관적 가용성 탐색'이라는 '有'의 진정한 화용 기능을 명시적으로 교수할 것을 주문하였다. 나아가 보어와 결합된 청크 훈련과 실전 화용 역할극을 도입함으로써, 학습자가 모국어의 직역 습관에서 벗어나 사건을 인지 공간 내의 정태적 대상으로 포착하는 중국어 특유의 화용적 시각을 근본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전통적 문법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有+VP' 구문의 오류 기제를 모국어 전이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심층 규명하고, 코퍼스 데이터를 통해 이를 실증해 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지 화용론적 교학 모델이 향후 중국어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한국인 학습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원어민의 화용적 직관에 도달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고석주, 「“있다”의 의미에 대한 연구 -어휘개념구조 표상을 중심으로-」, 『한말 연구』 제20권, 한말연구학회, 2007.
- 구연상, 「하이데거의 존재물음과 ‘있다’의 근본의미」, 『존재론연구』 제26권, 한국하이데거학회, 2011.
- 권순구, 「보조용언 “있다”에 관한 연구」, 『인문학연구』 제30권,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 김천학, 「본용언 ‘있다’ 구성을 통한 주어 및 화제 논의」, 『국어학』 제97권, 국어학회, 2021. 94
- 남경완, 「‘있음(being)’의 개념적 의미와 언어적 표상」, 『언어와 정보 사회』 제30권,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7.
- 박미은·이규민, 「한국어 학습자의 ‘있다, 없다’의 사용 양상 분석 -토픽 4급이상 외국인 학습자의 글쓰기 자료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105권, 국제어문학회, 2025.
- 박진호, 「한·중·일 세 언어의 존재구문에 대한 대조 분석-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언어와 정보사회』 제30권,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7.
- 박효정, 「한국어 완료상 문법 표현 교육 연구 - ‘-고 있다’, ‘-어 있다’, ‘-어 놓다’를 중심으로 -」, 『배달말』 제76권, 배달말학회, 2025.
- 서동은, 「존재 이해의 비교 연구 -하이데거와 신선경의 “있다” 분류 비교의 관점에서-」, 『존재론연구』 제22권, 한국하이데거학회, 2010.
- 신선경,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태학사, 2002.
- 오현주·차오팡, 「자연언어처리 기반 한·중 대응 문법구조의 중요성 고찰 - ‘있다’를 중심으로」, 『중국학』 70호, 대한중국학회, 2020.
- 이림용·한용수, 「한국어 상(Aspect)의 영상도식 분석 -‘-어 있다’와 ‘-고 있다’를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제30권,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9.
- 이문화, 「한국어 “있다”와 “없다”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연구 -한·중 드라마

- 병렬말뭉치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제34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4.
- 이성우, 「‘NP이 있다’ 구성의 대칭성과 비대칭성」, 『한국어 의미학』 제70권, 한국어의미학회, 2020.
- 이성우, 「‘있다’의 품사에 대한 재고찰」, 『한국어 의미학』 제79권, 한국어의미학회, 2023.
- 이슬기, 「중국어 ‘有’의 상표지 기능에 관한 통시·공시적 분석」, 『중어중문학』 제100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25.
- 이슬기, 「‘(有)+V+没’와 ‘(有)+V+不’ 구문의 코퍼스 대조 분석 — 상적 강요와 존재 양태 운영자를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제123집,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26.
- 조용준·고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 있다” 습득 양상 연구」, 『겨레어문학』 제55권, 겨레어문학회, 2015.
- 최신혜, 「한국어와 중국어의 소유·존재 개념 표현 고찰 -“유(有)”, “재(在)”, “있다”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56권, 중국어문연구회, 2013.
- 홍재성 외,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동아출판, 2002.
- Liu Wei·손정애, 「韩国学习者使用“有”字句的偏误分析 — 以误加、遗漏为中心」, 『중국어문학』 제93권, 한말연구학회, 2017.
- 崔宰荣·张斌, 「“有+V”结构在南方方言中的功能考察」, 『중국언어연구』 제76집,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18.
- 兰碧仙, 「“有+VP”2结构分析」, 『集美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3期, 2009.
-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增订本)』, 北京: 商务印书馆, 1999.
- 马庆株, 『汉语动词和动词性结构(一编)』,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5.
- 沈家煊, 「“有界”与“无界”」, 『中国语文』 第5期, 1995.
- 沈家煊, 『不对称和标记论』,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1999.
- 宋金兰, 「“有”字句新探——“有”的体助词用法」, 『青海师专学报』 第2期, 1994.
- 王国检、马庆株, 普通话中走向对称的“有+VP(+了)”结构, 『南开语言学刊』 第2期, 2008.
- 张亮, 「接触与类推:“有+VP”结构在普通话中的接受」, 『汉语学习』 第4期, 2021.

- Gass, S. M., & Selinker, L.,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 Introductory Course(3rd ed.)*, New York: Routledge, 2008.
- Palmer, F. R., *Mood and Modality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Michaelis, L. A., Type shifting in construction grammar: An integrated approach to aspectual coercion, *Cognitive Linguistics*, 15(1), 2004. pp. 1-67.
- Pustejovsky, J.,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A: MIT Press, 1995.
- Odlin, T., *Language Transfer: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language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Kellerman, E., Now you see it, now you don't, in S. Gass & L. Selinker (Eds.), *Language Transfer in Language Learning*, Amsterdam: John Benjamins, 1983, pp. 112-134.
- MacWhinney, B., A unified model of language acquisition, in J. F. Kroll & A. M. B. de Groot (Eds.), *Handbook of Bilingualism: Psycholinguistic Approach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49-67.
- Xiao, Richard & McEnery, Tony, *Aspect In Mandarin Chinese : A Corpus-based Study*, John Benjamins Pub Co, 2004.
- HSK 동태 작문 코퍼스(HSK动态作文语料库): <https://hsk.blcu.edu.cn/>

## Abstract

An Analysis of Overuse Errors and Cognitive-Pragmatic Pedagogical Measures  
for the '有+VP' Construction in Modern Spoken Chinese  
— Focusing on the Negative Transfer of the Korean '있다'

Lee, Seul Ki

The '有+VP' construction in modern Chinese is not merely a tense marker, but an existential modal marker that converts an event into a static object to inquire about its truth value or availability. This study identifies the fundamental cause of Korean learners' frequent misuse of this construction as negative L1 transfer, stemming from the literal translation of the Korean multi-functional auxiliary verb '있다(iss-ta)' and the bound noun construction ('-르 거'). Using the HSK Dynamic Composition Corpu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patterns of these pragmatic errors.

The analysis reveals that learners produce core errors by forcibly combining the static marker '有(you)' with unbounded situations (e.g., progressive and state continuation) and dynamic situations expressing the speaker's subjective future volition. This results from the lexical overgeneralization of the broad usage of the L1 '있다', caused by a failure to recognize the 'aspectual coercion' constraints and objectification rules of the target language's '有'. Conversely, the occurrence of positive transfer in past experience constructions, where boundedness and stativity are satisfied, cross-verifies the cognitive analysis framework of this stud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 three-stage cognitive-pragmatic pedagogical approach that goes beyond simple morphological error correction. It suggests concrete pedagogical alternatives: a 'de-synchronization' strategy to sever the blind cognitive link with the L1 '있다'; teaching pragmatic functions such as 'fact-checking' in the [+realis] domain and 'availability exploration' in the [-realis] domain; and complement-combined chunk training along with pragmatic

role-play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ands the discussion from morpho-syntactic analysis to practical cognitive-pragmatic pedagogical prescriptions based on empirical corpus data.

**Key words** : ‘You(有)+VP’ Construction, Aspectual Coercion, Negative L1 Transfer, Lexical Overgeneralization, Corpus Error Analysis, Parasitic Mapping, Cognitive-Pragmatic Pedagogical Approach

투 고 일 : 2026. 4. 10. / 심 사 일 : 2026. 4. 15.~ 2026. 5. 15. / 게재확정일 : 2026. 5. 20.